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 절반 이상 '긍정'

55%가 대답... 연령별로 30대가 73%로 가장 높아 국민투표 시기, 응답자 47% "지방선거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24%였으며 나머지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 평가하는 응답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대 66%, 40대 65%, 50대 48%, 60대 31%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69%, 서울 59%, 인천·경기 56%, 부산·울산·경남 53%, 대전·세종·충청 52%, 대구·경북 38% 등

의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가 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77%, 무당층 32%, 바른미래당 28%, 자유한국당 20%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545명)들에게 이유를 묻은 결과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거나 '해야 할 일'이라는 응답이 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6%) ▲대통령 권한 행사(6%) ▲공약 실천(6%)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214명)들은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6%) ▲개헌 자체 반대, 변화 반대(6%)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4%는 '지방선거 이후부터 올해 안까지',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8%다. 총 통화 5613명 중 100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추출방식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이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정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도 의용소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입 의용 소방대장 임용장 및 신입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명장 수여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 동남아 수출활성화 간담회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4층 접견실에서 동남아 한국식품 수입상 연합회(KOFIA/회장 고상구 대표) 회원들과 전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KOFIA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6개국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는 한인 수출상인 단체로 연간 2,300억원 규모의 한국 상품을 각 지역에 유통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상품의 동남아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KOFIA의 전북 방문은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치민 총영사를 역임한 박노완 국제관계대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할랄식품 제조 및 해외인증 지원, 동남아 지역 딸기 수출을 위한 품종 개량 등 농식품 분야 수출 증대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KOFIA 회원들의 유통망을 통해 도내 우수상품의 수출길이 확대되도록 해외시장 판매 증대와 홍보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검찰, MB 구속기한 연장

검찰이 이병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와 특수 2부는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31일 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방대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일까지 연장된 구속기한 동안 마비지 증거 수집 작업과 함께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방문 조사를 내렸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30일) 이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처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결국 무산됐다. /이상민 기자

급수상태 불량 고지대 먹는 물 '칼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색장동 등에 가압장 설치 시행

전주시는 특정시간대 수압이 약해지는 등 급수상태 불량으로 불편을 겪은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 가압장을 설치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도사용량이 증가하는 특정시간대 수압저하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색장동과 대성동, 추동마을 등 고지대 지역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7000만원을 투입해 가압장 설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색장동과 대성동 고지대 지역의 40여 세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압장을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두 마을은 아침과 저녁 등 수도사용량이 많은 특

정시간에 수압이 낮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추동마을 내 노후 가압장 시설을 확장 시설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수압이 낮아 불편을 겪는 고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가압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고지대지역 수압저하에 따른 출수불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고지대지역 가압장 설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본사 인사

▲김정훈 임:차장 명:제2사회부군산주제 (4월 2일자)

전북의 소리 전북의 음악 'Red' 로 통한다



도, 레드콘-음악창작소 개소... 콘텐츠 발전 지원

전북도는 음악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라북도 레드콘-음악창작소'를 개소해 음악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는 '레드콘-음악창작소' 구축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완료됨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 도의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장, 문화예술관계자, 음악 창작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드콘-음악창작소 개소식을 했다.

레드콘-음악창작소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창작소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작년 Redcon 오디션을 통해 참여하는 뮤지션 15팀을 선발했다.

이번 개소식은 이들의 거점 공간이 될 음악창작소의 시설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빨간색 컨테이너로 구성된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 음악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레드콘-음악창작소 사업에서 선발된 인디뮤지션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전북의 유망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레드콘-음악창작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뮤지션들이 도민과 교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여 음악콘텐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우정청, 우체국 예금사업 연도평가 대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28일 전남여수에서 전국 9개 지방우정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체국예금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2017년도 우체국 예금사업 연도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우체국 평가에서는 동전주우체국(4급관서 대상), 순창우체국(5급관서 장려상), 익산중앙동우체국과 군산소통동우체국(5급이하 관서 장려상), 정읍동우체국(별정국 우수상)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